

심리학적 관점에서의 남북한 문화이질성: 북한이탈주민의 심리적 적응을 중심으로

채 정 민[†]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이 종 한

대구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남북한 통일 논의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남북한 문화이질성 논란을 심리학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북한이탈주민들 181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법을 적용하여 실시되었다. 여기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은 정착 초기에 문화이질감을 상당히 많이 지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 자체가 곧바로 문제는 아니며, 이에 대한 대처의 전략으로서 남한 문화지향성을 얼마나 구사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점이 밝혀졌다. 즉, 남한 문화지향성을 중심으로 적절하게 대처하면 자기효능감을 높게 가질 수 있었으며, 이에 따라 심리적 적응 수준도 높았다. 그런데, 이 심리적 적응 수준은 생활만족도와 같은 긍정적 지표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으나, 우울감과 같은 부정적 지표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여기서 자기효능감이 낮은 집단이 우울감이 높았고, 우울증상군으로 분류할 수 있는 경우가 해당 집단의 43% 수준에 이르는 정도로 많았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북한이탈주민들의 남북한 문화이질감 극복을 위해 남한문화 적응 지향성을 많이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질감 그 자체만을 문제시하는 것보다는 이에 대해 대처하는 전략이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주요어 : 문화, 심리적 적응, 북한이탈주민, 이질성, 통일

[†] 교신저자 : 채정민,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 5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E-mail : minspin@unitel.co.kr

남북한의 통일을 논할 때마다 거의 빠짐없이 등장하는 것이 '남북한 문화 동질성 혹은 이질성(이하, '이질성') 논란이다. 얼핏 보면 이 논란이 통일 이전 시기에는 불요불급한 것이 아닌 것처럼 보일수도 있지만, 실체는 그렇지 않다. 그 이유는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에 입국하는 수가 급증하고 있고, 남북한간에 경험과 문화 교류 등을 통해 양측 주민들의 접촉 빈도가 하루가 다르게 많아지고 있으며, 남북이산가족 상봉이 점차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이 이질성 논란이 가급적 빨리 해결되어야 한다.

그래서 남북한 문화이질성 논의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첫째, 그 동안 제기되었던 논란들은 무엇이었고 그 주장들의 핵심은 무엇인가를 개관해야 한다. 여기서 앞으로의 논의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다. 둘째, 남북한 문화의 이질성 논란이 왜 그리고 어떠한 관점에서 조명되어야 하는가를 결정해야 한다. 즉, 어떠한 이론 혹은 어떠한 접근 방식으로 조명되어야 하는가이다. 셋째, 남북한 문화의 이질성이 있다면 그것의 실체는 무엇인가를 규명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는 이질화된 것과 동질성을 유지하는 것 간의 구분을 포함한다. 넷째, 만약 이질화된 것이 있다면 이것이 남북한 주민들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는가를 조명해야 한다. 여기서 밝히려는 기제는 주로 심리학적인 것으로서 집단과 개인의 심리적인 현상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 다섯째, 이렇게 밝혀진 이질성과 동질성이 작용하는 기제를 토대로 이질성을 극복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는 거시 정책적 측면뿐만 아니라 미시 개인적 측면에서도 모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각종 사회 캠페인과 심리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들 활동에 대한 실제 효과를 검증하여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결과

를 토대로 향후 좀 더 나은 통일 방안을 수립하는데 심리학적 관점에서 남북한 문화이질성 측면을 해소할 수 있는 해법을 제안해야 한다.

그런데,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내용을 모두 다룰 수 없으므로 네 번째의 방향 즉, 남북한 문화의 이질성이 해당 주민들에게 어떠한 심리학적 영향을 미치는 지까지만 다루겠다. 그리고 여기서 해당 주민의 범주도 북한이탈주민들에게만 제한하여 밀도있게 살펴보겠다. 그 이유는, 북한 주민들에게는 일단 접근이 구조적으로 어렵고, 남한 주민들은 북한이탈주민들과의 관계에서 아직은 주류 문화의 구성원이라는 입장에서 별로 이 이질성에 의해 영향받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남북한 문화 이질성 논란에 대한 개관

그 동안 제기된 논란은 다음과 같이 2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대부분의 학자들이 주장한 것으로서 남북한의 문화적 이질성이 크다는 점이다. 그 근거로서 50여년 간의 분단, 체제 상이성, 서구화의 정도 차이, 경제적 수준의 차이, 동족상잔의 비극 체험 등이 거론된다(채정민, 2003). 이 관점(예, 임현진, 1999)에서는 현재의 이러한 심한 문화적 이질감을 그대로 방치한 채로 통일이 되면 사회적 통합과 심리적 통합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본다. 특히, 임현진(1999)은 남북한이 그 동안 '분단 문화' 속에서 습득된 상호간의 대립과 갈등이라는 냉전적 대결의식이 완전히 청산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조그만 차이도 전체의 차이로 확대해석될 소지가 높다고 보았다. 그래서 그는 점차 문화적 이질성을 감소시키고 동질성을 확대시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그의 주장은

‘무결점적 통일론’ 다시 말해, 통일이 되더라도 문제는 전혀 없어야 한다는 점을 지나치게 지향하는 것에 더 가까운 것이다. 하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성취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이다.

임현진(1999) 등의 견해와는 달리 남북한의 문화적 이질성이 크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이를 굳이 동질화시킬 필요가 없다는 견해가 있다. 이장호(1997)는 통일을 이루더라도 현재의 이질성뿐만 아니라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할지 모르는 이질성을 동질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를 포기하고 이질성을 문화의 다양성 차원에서 수용하는 방향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동질성 신화의 포기론’을 제시했다. 그런데, 이러한 문화적 이질성을 인정하는 견해는 현실적으로 타당하다고 볼 수 있지만, 자칫 일반 국민들에게 ‘남한과 북한의 문화가 하나도 같지 않다’는 의식과 같이 과잉 일반화를 하는 빌미를 제공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무엇이 이질적이고 무엇이 동질적인지’를 좀 더 정확히 파악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둘째, 일부 외국인 학자들은 남한과 북한의 문화적 이질성이 어느 정도는 있기는 하지만, 서로 다른 인종적인 배경을 가진 경우처럼 문화적 이질성이 많지는 않고 오히려 동질성이 아직은 훨씬 많다고 주장한다. 이들이 주장하는 중요한 근거는 남한과 북한의 문화적 차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언어가 아직은 통역을 사용하거나 상대방의 언어를 외국어식으로 학습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다. 이 주장은 피상적으로만 보면 통일에 대해 지나치게 낙관적인 관점에서 동질성만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한 사회 내에서도 다양한 문화적 이질성을 보이는 하위문화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설득력있는 주장이라고 보인다. 그리고 이 관점은 우리 한민족의 통일에 커다란 공통분모가 있음을 확인시

켜 주면서 심리적 통합이 불가능하지 않다는 희망을 준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이질성을 부인함으로써 왜곡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우려되는 주장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심리학적 관점에서 남북한 문화 이질성과 동질성을 조명하고, 이들의 정도가 심리학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지니는지를 북한이탈주민들의 적응 문제를 중심으로 파악해보겠다. 이를 위해 먼저 기존에 논의되어온 남북한 문화 이질성 연구 결과를 개관하겠다.

남북한 문화 이질성 논란이 왜 필요하고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

이 논란의 핵심은, 남북한의 문화적 특징은 해당 사회의 구성원인 개인들의 심리 즉, 성격, 생활양식 등에 영향을 미치고, 이것들은 양측 구성원들이 상호작용하는 현실에서 ‘차이(difference)’를 낳아 결국에는 ‘차별(discrimination)’이나 ‘갈등’으로 이어지며, 이는 개인 차원에서는 부적응을, 사회 차원에서는 비통합 즉 분열을 낳는다는 점이다. 이와 유사한 경우가 영호남지역갈등의 문제와 논란이었다. 이 사안은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고, 총선과 대선과 같은 경우에는 늘 쟁점화되어 문제의 심각성이 최고조에 달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남북한 문화이질성의 사안도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그냥 방치할 경우 주요 관련 사안이 제기될 때마다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

이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인류학계와 심리학계에서 관심이 많았던 ‘문화=성격’ 논란과 관련지어 볼 수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M. Mead나 R. Benedict 등을 중심으로 아주 오래

전에 인류학적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1950년대에 그 한계가 드러나서 이제는 문화와 성격은 동질적이지 않다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그렇지만 문화와 개인의 성격이 완전히 무관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최근 Kitayama, Markus, Matsumoto와 Norasakkunkit(1997)를 중심으로 한 문화심리학자들은 이와 유사한 견해를 보이고 있다. 이들은 개인의 심리적 경향성은 주어진 문화 체계의 구성 요소이며, 이것에서 분리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될 만큼 이들 간에는 상호의존성이 많이 존재한다고 보았다. 그래서 한 개인의 행동, 사고방식, 감정양식 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화를 알아야 하고(Whiting, 1976; Phinney & Flores, 2002에서 재인용), 그들 간의 관련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특히, 북한과 같이 전체주의 사회에서는 문화의 동질성이 매우 중시되기 때문에 북한 문화는 북한의 주민 특성과 거의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본 연구는 '문화=성격' 도식 즉, '특정한 문화에 소속되어 있는 각 개인들의 성격은 해당 문화의 특징을 내면화함으로써 문화와 성격 간에 거의 일치한다'는 관점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문화와 성격은 전혀 별개이다'는 관점도 아닌 중간적 관점에서 이 두 측면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문화=성격' 도식 관점 이후에 등장한 '문화=자기(self)' 도식 즉, '특정한 문화에 소속되어 있는 각 개인들의 자기 모습은 해당 문화의 특징과 거의 일치한다'는 측면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무엇이 이질화되었고 무엇이 동질적으로 유지되는가?

그 동안 남북한 문화 이질성에 대한 연구는

사회학(예, 임현진, 1999)이나 인류학(예, 김광익, 1999)과 같은 주로 거시적 차원에서 다루어졌다. 이들 연구는 주로 이념 체계라는 정치적 측면의 비교를 먼저 분석한 후, 문화에 해당되는 규범적 가치 차원, 생활 문화 차원에서 다루었다. 여기서 얻어진 결과들은 연구 간에 다소 다르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관점의 차이, 연구 대상자의 차이, 시대적 차이 등이 있다. 특히, 시대적 차이도 무시할 수 없는데, 예를 들면 북한 내부 사정의 변화라든가, 남한 내부 사정의 변화 등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에 의해 차이가 어느 정도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표 1과 같은 유사한 결과로 수렴된다. 여기서 볼 수 있듯이 남북한은 이념 체계가 크게 다르고, 이에 따라 규범적 가치와 생활문화 수준의 가치가 적지 않게 다르다. 이러한 결과는 자연스러운 문화형성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양측 정부가 각각의 체제 이념을 실천하기 위해 체제 정비, 교육 등을 통해 사회를 이 방향으로 변화시키려고 노력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거시적 분석이 주로 문헌에 의존하여 통찰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얻어진 결과를 동일 차원에서 극단적 대비 형태로 제시함으로써 이질성이 극대화되고 동질성이 극소화되는 문제를 안고 있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는 유효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기존의 심리학적 연구들도 이와 유사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먼저 문화적으로 이질화되어 있다고 보는 견해를 살펴보자. 민경환(1994)은 남한은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자유 시장 정신, 진취성, 자율성, 개인주의, 경쟁의식이 강하고, 북한은 사회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통제된 공동 작업, 수동성, 집단주의, 협동성이 강하다고 보았다. 그리고 그는 남한 사회는 후기 산업사회의 주기에 해당하고 개방적이며 자유주의를 가지고

표 1. 남북한의 이질성과 동질성

	남 한	북 한	
이질성	이념 체계	자유민주주의 / 시장경제적 가치관 개인주의	주체사상 / 사회주의적 가치관 집단주의
	규범적 가치의식	개인의 권리 중심 개인주의적 도덕관 합리적 사고 중시	집단의 이익 중심 집단주의적 도덕관 혁명적 사고 중시
	근대화와 전통	근대화 지향적	전통 지향적
	선호되는 가치순위	1. 행복한 가족 관계 2. 편리한 삶 3. 자유 4. 타인의 인정 5. 국가의 안정 등	1. 국가의 발전 2. 평등 3. 편안한 삶 4. 행복한 가족관계 5. 자유 등
	사회적 가치의식	집단주의가 강하게 온존 유교적 가치관의 전승 가족적, 온정적	집단주의 가치관 유교적 가치관의 잔존 가족적, 연대적
동질성	민족의식	강한 민족의식	

주. 조한범(1997)이 주장한 이질성 측면을 임현진(1999)이 재정리하여 제시한 도표와 임현진(1999)이 주관적으로 판단한 동질성을 도표화한 것을 본 연구진들이 편의상 하나의 도표로 만든 것임.

있고, 북한 사회는 초기 산업사회의 주기에 있으며 폐쇄적이고 권위주의를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이외에도 이와 유사한 입장을 보이는 심리학적 연구들(예, 민성길, 2000; 이수원과 신건호, 1993)이 있다. 그런데, 이들 연구결과들도 대체로 문헌중심의 분석에서 도출된 것이지만, 북한이탈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 결과(성영신, 서정희, 심진섭, 1993)와 유사하다는 점에서 그 주장의 타당성을 어느 정도는 인정할 수 있다.

문화적 측면이 해당 사회의 구성원인 개인들의 심리적 측면에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서 이장호(2000)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그는 사회 운영 체제와 관련하여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측면 등에서 양측 주민 간에 다양

한 심리적 차이를 보인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남북한의 분단 이후 체제 종속적 사회 환경과 생활양식이 많이 달라서 뚜렷한 이질성을 보이는 데, 남한과 북한이 인지 양식 측면에서 개인주의 대 집단주의, 정서 구조 측면에서 조건성 대 절대성, 행동 성향 면에서 시장지향형 대 이념지향형의 양상을 보인다고 제시했다.

남북한 주민들이 실제 생활에서도 차이가 많다는 것은 북한이탈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드러났다. 이기춘, 이기영, 이은영, 이순형, 김대년, 박영숙, 최연실(1998)의 연구에서 소비생활과 관련된 측면을 파악했는데, 북한에서는 매우 열악한 경제 환경으로 내핍적 생활양식이 주를 이루면서 이에 따른 가치관이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으로 남북한 문화적 동질성 주장도 만만치 않다. 한성열(2000)은 임현진(1999)이 앞서 표 1에서 제시한 동질성 측면과 맥락을 같이하는 주장을 했다. 한성열(2000)은 가부장적, 부자중심의 서열적 질서, 유교적 가치 면에서 남한과 북한은 많은 동질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예를 들면, 가족주의와 부자 중심주의의 기제를 가지고 북한의 주석제, 김일성 부자의 권력 승계와 유지 과정을 설명할 수 있고, 이 기제를 가지고 남한의 재벌과 일반 가정의 부자 상속 과정도 설명할 수 있다고 보는 방식이다.

남북한 문화적 동질성의 또 다른 면이 제기되었다. 정치학자인 이종석(1998)은 남북한이 서로 미워하면서도 닮아가는 '거울 영상 효과(mirror image effect)'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사회학적 측면에서 조혜정(1996, 1998)은 '분단의식 면에서 보면 남북한이 놀랄 만큼 유사한 면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것은 비심리학자들의 주장이지만 다분히 심리학적 측면을 다룬 것이고, 남북한 문화적 동질성을 주장한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심리학적 관점에서의 남북한 문화 이질성 논란에 대해 남북한 주민의 가치관을 실증적으로 밝힌 연구들(예, 김종성, 2002; 독고순, 2001)이 있다. 사회학자인 독고순(2001)은 북한이탈주민과 남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비교문화적 관점에서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가치관을 비교하였고 그 결과에서 동질성과 이질성 측면을 확인시켜 주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 연구에서 집단주의에서는 양측 간에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는데, 개인주의의 수평적 관점에서는 남한 주민이, 개인주의의 수직적 관점에서는 북한 주민이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다. 따라서 이들 집단 간에는 집단주의 가치에서는 동질적일 가능성이 높고, 개인주의 가치에서는 다소

이질적일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남북한 간의 문화적 동질성이 존재하고 있다고 간접적으로 실증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과연 남북한의 통합을 도모하는데 친화력으로 작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조형(1995)은 남북한이 전통에 기초한 가족주의, 권위주의, 집단주의, 이기주의, 불신과 적대, 그리고 민족주의적 성향 등을 공유하지만, 이것들이 남북한의 통합을 도모하는 친화력으로 작용하기보다는 분리, 해체,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요소라고 주장하였다. 그 이유는 이들 가치의 외형적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그 의미와 지향성은 다르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은 이들 가치에 정치지향적 의미를 많이 부여하였고, 남한에서는 그보다는 일상적인 가치의 의미로 보기 때문이다.

이상의 남북한 문화의 이질성 논란에서 볼 때, 남북한 문화 간 이질성과 동질성은 각기 어느 정도 분명히 존재한다. 이를 굳이 논리적으로 본다면 동질성이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이질성이 있다면 이는 이질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 현실적 관점에서 보면 '동질적이다' 혹은 '이질적이다'는 식의 이분법적 관점에서 보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 이유는 모든 문화들 간의 비교에서 약간의 차이 즉, 이질성은 나타나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도적이고 이념적인 측면에서는 이질성이 많다고 보고, 반면에, 인간관계, 일상적 측면에서는 동질성을 많이 공유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논란에서 몇 가지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측면이 있다. 첫째는, 북한 문화의 이중성(서재진, 1995)과 남한 문화의 이중성(나은영, 민경환, 1998)이다. 이 문화 이중성이란, '겉으로 드러나 있는 명시적 규범 즉, 법, 규칙, 제도 등의 구조와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고 진행되는

암묵적 규범이나 행동 원리 간에 상당한 불일치를 보이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커뮤니케이션 방식에도 영향을 미친다. 박승관(1994)은 한국 사회가 공식적 커뮤니케이션이 비공식적 커뮤니케이션에 의해 식민화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즉, 공식적 연사를 "우리가 남이가" 혹은 "우리끼리 애긴데"와 같은 방식의 커뮤니케이션이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것은 개인들에게도 이중적 의식을 심어주게 된다. 그렇다고 해서 남한과 북한이 문화적 이중성을 축으로 하여 동일한 문화를 형성했다고 보면 큰 오해이다. 이러한 이중성은, 북한에서는 겉으로는 사회주의형 인간으로서의 의식을 속으로는 현실주의형 인간으로서의 의식을 갖게 하는 것으로, 남한에서는 겉으로는 서구의 물질주의적 의식을 속으로는 전통적인 유교주의적 의식을 갖게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양측의 문화 이질성 논란을 정교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양측 집단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직접 경험적으로 파악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북한 주민들에 대한 접근이 어려워 이를 실현할 수 없다.

둘째, 이러한 점들이 최근 들어 제기된 2가지 측면 때문에 변화의 여지가 발견되고 있다. 첫 번째 측면으로는, 세대 차이 측면과 관련된 것으로서 점차 분단 이전 출생 세대는 사망하여 수

와 전 국민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감소하고, 그 이후 세대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질성이 더 문제가 될 수 있음이 제기되고 있어서 (예,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1996) 이질성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두 번째 측면으로는, 최근 북한이 체제 변화를 꾀하고 있고 북한 주민들이 경제난으로 자체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변화의 주요 기점은 2002년 7월 1일에 이루어진 7.1조치이다. 이 경제 변화 조치에 의해 북한 주민들의 사회의식은 사회주의는 버리고 자본주의는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표 2 참조). 이외에도 서재진(2004)은 이중적 행위양식의 심화, 현상탈출 심리의 심화 등을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이 2가지 점이 자체 변화의 의미도 있지만 남한 문화와 관련지어 볼 때 과연 이질성을 확대시킬 것인가 아니면 동질성을 확대시킬 것인가를 생각하게 만든다. 현재로서는 북한의 경제 체제가 상당히 자유주의 시장경제 체제의 방향으로 변모하는 것과 관련지어 보면 경제 체제와 관련된 의식은 동질성을 확대시킬 가능성이 높다. 반면에 그 외의 생활 문화와 관련되어서는 북한에서는 생활 문화 그 자체를 별로 변화시킬 의지가 없는데 남한에서는 역동적인 생활 문화의 변화가 나타난다는 점에서 비경제적 측면의 의식 측면에서는 이질성이 확대될

표 2. 북한의 사회의식 변화 유형에 대한 도식화

사회주의체제 원형	원형의 사회의식		7·1조치이후 변화된 사회의식	변화된 북한체제
사회주의	사회주의는 정당하다	→	사회주의는 실패했다	비사회주의
계획경제	국가의존성	→	장사를 통한 자력갱생	계획경제의 붕괴
배급제	사상성 중시	→	돈 중시 및 물신주의	배급제의 붕괴
명령경제	소극적 노동의식	→	적극적 근로의욕	경제의 사영화
행위규범	집단주의	→	개인주의	자생적 행위규범

서재진(2004)의 p.19에서 인용

가능성이 높다.

남북한 문화이질성은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어떠한 심리적 영향을 주는가?

이상의 남북한 문화의 이질성 측면은 집단을 단위로 한 사회학적 분석과 유사하기 때문에 양측 주민들이 실제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작용될 수 있는 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 특히, 동질적인 문화 내에서도 다양한 규범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관점(Fehr & Schmidt, 1999)에서 보면, 북한이탈주민이 동질적인 북한 문화권에서 왔다고 하더라도 개인별로 각자의 규범을 가지고 남한 주민들과 상호작용을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 이 점에 착안하여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에 입국하여 초기에 남북한 문화의 이질성 측면을 어떠한 형태로 경험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이러한 남북한 문화이질감이 정착 초기 단계에서만 지각되고 그 이후에는 지각되지 않거나 그 지각 수준이 변화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어떠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정착한 후 상당한 시간이 흐른 다음에 남한 문화의 심층적인(implicit) 측면을 느끼면서 남북한 문화이질감을 더 많이 느낄 수도 있다.

여기서 개인이 지각하는 이 문화적 이질성을 본 연구에서는 '문화적 이질감'이라고 규정한다. 여기서 '문화적 이질성'은 집단 차원에서 말하는 것으로서 객관적 측면이 강한데, '문화적 이질감'은 개인 차원에서 지각하는 것이므로 주관적 측면이 강한 것을 말한다. 이렇게 구분하여 개인 차원에서 '문화적 이질감'을 다루는 이유는 북한이탈주민들이 객관적으로 남북한 문화가 이질적이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질적이라고 지각

할 수 있다는 점을 좀 더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이때 이질감은 '부정적인 측면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 측면도 포함하는 포괄적 의미'로 보기로 한다. 본 연구에서 이 남북한 문화이질감을 확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북한이탈주민들이 사회적 표상 수준에서 남한과 북한의 문화 이질감을 경험할 때 각 개인별로 이질감을 느끼는 수준의 차이가 발생할 것이다. 이때 이들이 느끼는 북한 문화의 특징은 개인의 독특한 경험 위주가 아니고 북한 사회의 특징을 의미하므로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데, 남한 문화에 대한 특징을 지각하는 것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그 이유는 북한 내와 이탈 후 타 문화권에서 남한 문화에 대한 간접 접촉 경험이나 지식의 양, 이탈 후 체류했던 제 3국의 문화가 남한 문화와 유사한 정도, 남한 문화에 대한 적응 의지 등이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남북한 문화이질감을 많이 느끼는 것이 적응에 다양한 영향을 줄 것이다. 그런데, 이 문화이질감은 앞서 언급했듯이 어느 정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현재로서는 타당하다. 따라서 이 문화이질감을 거의 느끼지 않는 것은 1) 남한에 입국하기 전에 이미 남한 문화에 대해 친숙하고 실제 남북한 문화이질감이 없다고 생각한 경우, 2) 남한 문화를 지각하고 이해하는데 지각 능력이 낮은 경우, 3) 남한 문화를 지각하고 이해하는데 소홀하거나 안이하게 판단하는 경우, 4) 남한 문화를 아직 많이 경험하지 못해서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정보량이 부족한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런데, 4)의 경우는 남한 문화에 익숙해지는데 최소 2년이 경과되어야 하고, 4~5년 정도가 지나야 남한 사람과 친숙해진다는 보고(이우영, 이금순, 서재진, 전현준, 최

춘흠, 2000)가 지배적인 견해이므로 초기 입국 시의 남북한 문화이질감의 효과를 파악하려고 하는 본 연구의 취지에 어긋나서 제외한다. 3)의 경우는 이주민이라는 특성상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다는 점에서 적응 수준이 낮을 것이다. 2)의 경우는 당연히 적응 수준이 낮을 것이다. 1)의 경우 적응 수준은 높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3가지 모두 남한 문화를 수용하려는 노력이나

반대로 남북한 문화이질감을 아주 많이 느끼는 경우로서는, 5) 제 3국에서 남한에 대한 정보를 많이 접하되 차이가 큰 것을 위주로 접한 경우이거나, 6) 남북한 문화가 차이가 있을 것으로 막연히 생각하는 경우이다. 여기서 6)의 경우는 표면적으로 보면, 부정확한 판단이므로 적응 수준이 낮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5)의 경우는 그러한 차이를 인식하고도 남한행을 선택한 것이므로 적응에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서 적응 수준은 높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러한 식의 구분이 현재로서는 쉽지 않다. 그 이유는, 남한 입국 전 남한 문화 친숙도는 파악할 수 있지만, 그 친숙도의 수준과 당시의 지각능력, 소홀함 혹은 안이함, 미경험 등을 이미 정착 단계에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을 대상으로 파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연구는 향후의 종단적 연구 방식을 적용하여 중국 등의 해외 공관에 입국 대기 상태에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을 대상으로 연구할 때 파악하기로 하고, 본 연구에서는 정착 단계 초기에 남북한 문화이질감을 지각하는 상황부터 파악하기로 하였다.

그렇다면 남북한 문화이질감이 곧바로 적응 수준을 결정할 것인가? 그것은 그렇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문화이질감을 많이 가질 경우에는 이를 극복하려는 전략을 구사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전략에는 북한 문화를 버리기보다는 남한 문화를 수용하려는 경향을 많이 가지는 것이 두드러질 것이다. 왜냐하면, 북한 문화를 버려야만 남한 문화를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는 채정민(2003)이 제안했듯이 북한 문화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경향을 가지든 그렇지 않은 간에 남한 문화를 수용하려는 경향을 가질 수 있는 것 즉, 이 2개의 경향성이 상호 독립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남북한 문화이질감을 많이 가질수록 적응하기 위해서는 남한 문화 지향성을 많이 가질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이 남한 문화 지향성을 많이 가질 경우에 적응 수준도 높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여기서 적응 수준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자기 효능감과 생활만족도로 측정하였다. 먼저, 자기 효능감은 일상사의 사건과 자기 자신의 기능 수준에 대해 통제력을 행사하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을 말한다(곽금주, 1998). 이 자기효능감은 한 사회 내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중요한 것이지만, 북한이탈주민들처럼 타 문화권에 이주하여 새롭게 자신의 능력을 시험해나가고 그 결과를 경험함으로써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을 새로이 가지게 되는 경우에는 더 더욱 중요한 개념이다. 특히, Bandura(1977)는 자기효능감의 원천으로서 성취 경험, 대리 경험, 사회적 설득, 생리적 징후를 들었는데, 북한이탈주민들의 경우에는 자신들이 남한 사회에서 남북한 문화이질감과 관련하여 직접 경험한 내용들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감안할 때 매우 유효한 개념이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들 중에서 남북한 문화이질감을 효과적으로 잘 처리한 경우에는 자기효능감이 높을 것이다. 그리고 이 자기효능감이 일반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으로 구분해서 볼 수도 있는데, 이 중에서 남한의 문화 이질감

과 더욱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서는 사회적 자기효능감을 들 수 있으므로 이 측면에서 높은 관련성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

또 하나의 적응 지표인 생활만족도는 주관적 안녕감과 같이 긍정적인 측면을 측정하면서 유능감 모델(competence model)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많은 학자들(예, Kazdin, Siegel & Bass, 1992)에 의해서 제기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생활만족도를 승인된 행복감의 직접적 표현, 전반적인 안녕감, 행복, 전체로서의 삶에 대한 만족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견해(예, Tran, 1987)를 수용하여 채택하였다. 이 생활만족도에 기여하는 것으로 Campbell(1981)이 꼽은 변인들로서 건강, 재정, 가족관계, 봉급, 우정, 주택, 생활의 동반자, 여가 활동, 종교, 자기존중감, 교통 그리고 교육이 있는데, 북한이탈주민들의 경우에는 이러한 것들의 거의 대부분을 새롭게 형성하거나 재설정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적응적 측면의 총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들 중에서 남북한 문화이질감을 많이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극복하려는 노력을 통해 생활만족도가 높은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 과제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입국 후 정착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하나원 교육 이수 후 초기 정착 3개월 이내에 남북한 문화이질감을 어느 정도로 지각하는가가 심리적 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확인하는 것에 목표를 두었다.

과제 1. 전체적으로 북한이탈주민들의 남북한 문화이질감은 어느 수준인가?

과제 2. 입국 초기 요인별로 남북한 문화이질감이 어떻게 다른가?

과제 3. 북한이탈주민의 남북한 문화이질감이 심리적 문화적응 지향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과제 4. 북한이탈주민의 심리적 문화적응 지향성이 문화이질감과 자기효능감에 매개효과를 보이는가?

과제 5. 북한이탈주민들의 자기효능감(전체, 일반적, 사회적)이 심리적 문화적응 지향성과 심리적 적응지표인 생활만족도와 우울감에 매개효과를 보이는가?

방 법

연구 대상자

국내 거주 북한이탈주민들이 신분 노출을 기피한다는 점과, 무선 할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전집 목록 획득이 구조적으로 어렵다는 점 때문에 무선 할당 표집 방식을 적용하지 않고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을 변형된 스노우볼링(snow-balling) 방식을 적용하여 표집하였다. 총 201명이 조사에 응했는데, 불성실하게 응답한 20명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181명(남자 102명, 여자 79명)이 분석에 포함되었다. 이들의 평균 연령은 약 34세 7개월(SD=10세 5개월)이었고, 연령 범위는 20세에서 68세까지이며, 평균 정착 경과 기간은 약 2년 7개월(SD=1년 7개월)이었고, 평균 북한이탈 경과 기간은 약 4년 9개월(SD=2년 5개월)이었으며, 평균 해외 지체 기간은 약 2년 2개월(SD=2년 1개월)이었다.

측정 도구

지각된 남북한 문화이질감 척도

채정민(2003)이 기존의 비교문화심리학 연구들과 심리적 문화적응 현상을 다룬 연구들을 토대로, 식습관, 감정 표현 방식, 사고방식, 어투, 차림새(외모 스타일), 가치관, 대인관계 양식, 취미 활동, 집단 활동 행태, 갈등 해결 방식이라는 10개의 문항을 단일 요인으로 설정한 척도이다. 이들 문항에 대해 북한이탈주민들이 정착 초기 3개월 이내에 북한 문화와 남한 문화를 비교해서 '1점 = 전혀 다르지 않다'에서 '5점 = 많이 다르다'의 5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심리적 문화적응 전략 유형 척도

채정민, 한성열, 허태균, 김동직(2002)이 Berry의 심리적 문화적응 전략 유형 개념에 따라 한국에 유입하는 북한이탈주민용으로 4점 척도의 총 16개 문항으로 구성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북한 문화 지향성과 남한 문화 지향성을 하위 요소로 포함하고, 각각 8개 문항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는 '나는 일상생활에서 남한식 말투를 사용하려고 노력하겠다'와 같은 문항을 포함한다. 응답은 '1점 =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4점 = 전적으로 그렇다'로 하도록 하였다.

자기효능감

Sherer, Maddux, Mercandate, Prentice-Dunn, Jacob, Grogers(1982)가 Bandura의 자기효능감 개념을 토대로 제작한 것으로 23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는 2개의 하위 척도를 포함하고 있는데, 일반적 자기효능감(17개 문항)과 사회적 자기효능감(6개 문항)이다. 이들 각 문항은 '매우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척도로 평정된다. 본 연구에서는 홍혜영(1995)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는데, 사회적 자기효능감 척도의 항목 중 1개 항목(23번)이 문항-전체 점수 간 상관이 .20보다 현격하게 낮아서 제외하고 총

22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이 측정도구의 내적 신뢰도인 Cronbach's α 는 전체가 .87, 일반적 자기효능감이 .85, 사회적 자기효능감이 .60이었다.

생활 만족도

Diener, Emons, Larsen 및 Griffin(1985)이 5문항의 'Satisfaction With Life Scale'을 구성했는데 이는 '매우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으로 평정하는 방식인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우울감 척도(CES-D)

Redloff(1977)가 20개 문항으로 구성한 것으로서 최근 1주일 이내 응답자가 몇 일이나 해당 사건을 경험하는 지를 묻는 것으로서 '1점 = 1일 이하', '4점 = 5~7일'의 4점 척도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결 과

북한이탈주민의 남북한 문화이질감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에 입국하여 초기에 가지는 남북한 문화이질감은 3.93(SD=.63, 5점 척도)으로 매우 높고, 2.10에서 4.90까지의 범위를 보였다. 하지만, 성별, 가족 동반 입국 여부별, 북한 내 사회경제적 지위, 도착 연령대별 변인과 같은 인구통계학적 변인들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북한이탈주민들의 국내 입국 시점과 관련하여 이 문화이질감 지각의 수준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정착경과기간별로 분석해 보았는데, 역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남한에 입국하는 대부분의 북한이탈주민들이 남북한 문화의

차이를 지각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잠재적 이유로는 다음과 같은 점을 들 수 있다. 첫째, 장기간의 분단과 상호 교류의 부족, 상이한 체제와 같은 점 때문에 북한이탈주민들은 자신들이 속해 있던 북한의 문화와 남한의 문화가 다를 수밖에 없다고 볼 것이다. 둘째, 이주자들이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새로운 환경에 대해 가지는 '낯설다'는 점 때문에 이러한 문화이질감을 가지게 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환경적 측면은 Berry(1997)의 모델에서도 지적되었듯이 자연 환경, 사회 환경 등 다양한 환경을 포괄적으로 지칭한다.

이러한 점들은 '남북한 문화가 뭔가 다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의식을 갖게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들의 이 문화이질감을 특정한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키려고 한다면 개개인별로 다를 것이 아니라 이들 집단을 전체로 해서 다루는 방식이 더 주효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탈주민의 심리적 문화적응 지향성의 역할

북한이탈주민들이 이러한 문화이질감을 해결

해 나가는 과정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관련 변인들의 상관관계를 먼저 분석하였다(표 3 참조).

여기서 남북한 문화이질감은 북한 문화지향성과 거의 무상관인데, 남한 문화지향성과는 낮지만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그리고 이 문화이질감은 전체, 일반적, 사회적 자기효능감 모두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따라서 이러한 상관 관계를 토대로 '남북한 문화이질감 → 남한 문화지향성 → 각 자기효능감 제고의 가능성을 확인하게 된다.

표 3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를 토대로 남한 문화 지향성과 북한 문화 지향성의 매개 효과와 자기효능감(전체, 일반적, 사회적)의 매개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Baron과 Kenny(1986)가 제시한 회귀분석조합에 의한 매개변인분석을 하였다(표 4 참조). 이 분석법을 적용해서 매개 효과를 검증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구분해 볼 수 있다. 1단계에서는, 회귀식 1(매개변인 $M = \beta_1$ 독립변인 X_1)에서 β_1 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해야 한다. 2단계에서는, 회귀식 2(종속변인 $Y = \beta_2$ 독립변인 X_1)에서 β_2 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해야 한다. 3단계에서는, 회귀식 3(종속변인 $Y = \beta_3$ 독립변인 $X_1 +$

표 3. 북한이탈주민의 남북한 문화이질감, 남한과 북한 문화지향성, 자기효능감 간 관계

	북한문화 지향성	남한문화 지향성	전체 자기효능감	일반적 자기효능감	사회적 자기효능감
남북한 문화이질감	.01	.18*	.29***	.29***	.20**
북한 문화지향성	1.00	-.24**	-.09	-.02	-.26**
남한 문화지향성		1.00	.31***	.27***	.34***
전체 자기효능감			1.00	.98***	.78***
일반적 자기효능감				1.00	.63***
사회적 자기효능감					1.00

* $p < .05$, ** $p < .01$

표 4. 남한과 북한 문화지향성의 매개역할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회귀분석 1

매개변인(M)	회귀식 1 : 독립변인 $X_1 \rightarrow$ 매개변인 M		
	독립변인(X_1)	β_1	R^2
북한 문화 지향성	지각된 문화이질감	.004	.000
남한 문화 지향성	지각된 문화이질감	.182*	.033

* $p < .05$

표 5. 남한과 북한 문화지향성의 매개역할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회귀분석 2

종속변인(Y)	회귀식 2 : 독립변인 $X_1 \rightarrow$ 종속변인 Y		
	독립변인(X_1)	β_2	R^2
전체 자기효능감	지각된 문화이질감	.286***	.082
일반적 자기효능감	지각된 문화이질감	.287***	.082
사회적 자기효능감	지각된 문화이질감	.203**	.041

* $p < .05$, ** $p < .01$, *** $p < .001$

β_4 매개변인 M)에서는 β_4 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해야 해야 하고, 동시에 β_3 이 크기가 감소되어야 하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아야 한다. 그런데, 이들은 이와 같은 경우를 완전 매개(full mediation) 효과의 경우라고 보았고, 독립변인의 β_3 계수가 유의미한 수준에서 무의미한 수준으로 떨어지지 않으면서 계수의 크기가 감소하는 경우를 부분 매개(part mediation) 효과의 경우라고 보았다.

표 4에서 볼 수 있듯이 북한 문화 지향성은 지각된 문화이질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남한 문화 지향성은 높지는 않지만 정적인 유의미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토대로 표 5에서는 2단계에 해당되는 내용을 분석하였다. 표 5에서 볼 수 있듯이 지각된 문화이질감은 전체, 일반적, 사회적 자기효능감 모두에 정적인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표 6. 남한과 북한 문화지향성의 매개역할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회귀분석 3

종속변인(Y)	회귀식 3 : 독립변인 $X_1 +$ 매개변인 M \rightarrow 종속변인 Y				
	독립변인(X_1)	매개변인(M)	β_3	β_4	R^2
전체 자기효능감	지각된 문화이질감	남한 문화지향성	.238***	.265***	.150
일반적 자기효능감	지각된 문화이질감	남한 문화지향성	.246***	.223***	.130
사회적 자기효능감	지각된 문화이질감	남한 문화지향성	.146	.311**	.135

* $p < .05$, ** $p < .01$, *** $p < .001$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독립변인과 매개변인을 동시에 고려하였을 때, 매개변인인 남한 문화지향성은 유의미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독립변인인 지각된 문화이질감이 전체, 일반적 자기효능감에는 유의미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β_3 가 β_2 보다 모두 낮았으나(.286 → .238, .287 → .246), 사회적 자기효능감에는 유의미하지 않으면서 β_3 가 β_2 보다 낮았다(.203 → .146). 이것은 곧 사회적 자기효능감에 대해서는 남한 문화지향성이 완전 매개효과를 보이는 것이지만, 전체 자기효능감과 일반적 자기효능감에는 부분 매개효과를 보이는 것이다.

북한이탈주민의 자기효능감의 역할

앞서의 분석을 통해 북한이탈주민들의 남한 문화지향성이 지각된 문화이질감과 각 자기효능감 간의 관계에 부분 혹은 완전 매개효과를 가

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다음으로는 이들 각 자기효능감이 남한 문화지향성과 심리적 적응 지표인 생활만족도와 우울감에 매개효과를 보이는지를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서 앞서 사용된 매개효과 분석법을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표 7에서 볼 수 있듯이 남한 문화지향성은 자기효능감에 모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이들 모두에 대해 2단계 분석인 회귀분석2를 표 8과 같이 실시했다.

표 8에서 볼 수 있듯이 남한 문화지향성은 생활만족도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우울감에만 부적인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생활만족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분석을 하지 않고, 우울감에 대해서만 회귀식 3을 표 9와 같이 분석했다.

먼저, 전체 자기효능감은 독립변인과 매개변인을 동시에 고려하였을 때, 독립변인인 남한 문화지향성이 유의미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β_3 가

표 7. 각 자기효능감의 매개역할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회귀분석 1

매개변인(M)	회귀식 1 : 독립변인 X_1 → 매개변인 M		
	독립변인(X_1)	β_1	R^2
전체 자기효능감	남한 문화지향성	.309***	.095
일반적 자기효능감	남한 문화지향성	.268***	.072
사회적 자기효능감	남한 문화지향성	.338***	.114

* $p < .05$

표 8. 각 자기효능감의 매개역할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회귀분석 2

종속변인(Y)	회귀식 2 : 독립변인 X_1 → 종속변인 Y		
	독립변인(X_1)	β_2	R^2
생활만족도	남한 문화지향성	.043	.002
우울감	남한 문화지향성	-.321***	.103

* $p < .05$, ** $p < .01$, *** $p < .001$

표 9. 각 자기효능감의 매개역할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회귀분석 3

종속변인(Y)	회귀식 3 : 독립변인 X ₁ + 매개변인 M → 종속변인 Y				
	독립변인(X ₁)	매개변인(M)	β_3	β_4	R ²
우울감	남한 문화지향성	전체 자기효능감	-.267***	-.176*	.131
우울감	남한 문화지향성	일반적 자기효능감	-.276***	-.167*	.129
우울감	남한 문화지향성	사회적 자기효능감	-.274***	-.140	.120

* $p < .05$, ** $p < .01$, *** $p < .001$

β_2 보다 모두 낮았기 때문에(-.321 → -.267) 부분 매개효과를 보였다. 다음으로 일반적 자기효능감의 경우에도 이와 유사하게(-.321 → -.276) 부분 매개효과를 보였다. 하지만, 사회적 자기효능감의 경우에는 이 매개변인 자체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해서 전혀 매개효과를 보이지 못하였다.

**추가 분석 내용을 통해 본
북한이탈주민의 지각된 문화이질감이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앞서의 분석들은 주로 남한 문화지향성과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검증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서 북한 문화지향성 혹은 이들 성향의 조합에

따른 심리적 문화적응 전략이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는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없었다. 따라서 표 10부터는 이들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해 보겠다. 먼저 표 10은 이들 북한 문화지향성과 남한 문화지향성을 조합하여(combination) 구성하는 심리적 문화적응 전략이 각 자기효능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한 결과이다. 각 전략은 각 자기효능감에 다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분리 전략을 구사하는 경우 즉, 북한문화를 고수하고 남한문화를 수용하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가 전체 자기효능감과 일반적 자기효능감에서 제일 높았고, 동화 전략을 구사하는 경우 즉, 북한문화를 버리고 남한문화를 수용하겠다고 하는 경우가 사회적 자기효능감이 제일 높았으며, 주변화 전략을 구사하는 경우 즉, 북한문화도 버리고 남한문화도

표 10. 북한이탈주민의 심리적 문화적응 전략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능감 전체	일반적 자기효능감	사회적 자기효능감
동화 전략 (n=88)	3.46(.53) ^{ab}	3.50(.54) ^{ab}	3.34(.64) ^a
통합 전략 (n=70)	3.32(.44) ^b	3.37(.44) ^b	3.14(.57) ^{ab}
분리 전략 (n=12)	3.65(.63) ^a	3.77(.77) ^a	3.23(.79) ^{ab}
주변화 전략(n=11)	2.91(.16) ^c	2.93(.14) ^c	2.84(.43) ^b
F 값	5.878***	6.365***	2.888*

* $p < .05$, ** $p < .01$, *** $p < .001$

표 11. 북한이탈주민의 자기효능감이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우울감
전체 자기효능감	고집단(n=64)	1.65(.49) ^b
	중간집단(n=64)	1.76(.48) ^b
	저집단(n=53)	1.99(.50) ^a
	F 값	6.888 ^{***}
일반적 자기효능감	고집단(n=59)	1.66(.48) ^b
	중간집단(n=59)	1.69(.51) ^b
	저집단(n=63)	2.00(.46) ^a
	F 값	9.337 ^{***}
사회적 자기효능감	고집단(n=46)	1.59(.44) ^b
	중간집단(n=75)	1.85(.47) ^a
	저집단(n=60)	1.86(.56) ^a
	F 값	4.762 ^{**}

$p < .05$, $** p < .01$, $*** p < .001$

a, b, c는 Duncan의 사후검증 결과임.

수용하지 않고 소위 '자기방식대로 살겠다'는 식의 경우는 모든 자기효능감 영역에서 제일 낮았으며, 통합 전략 즉, 북한문화를 유지하면서 남한문화를 수용하겠다는 경우는 모든 자기효능감 영역에서 중간 수준을 보였다.

다음으로는 자기효능감의 수준별로 심리적 적응 지표인 우울감의 수준이 어떠한지를 알아봄으로써 자기효능감의 수준별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단, 생활만족도와는 앞서 분석한 바에서 드러났듯이 유의미한 관련성이 없었으므로 우울감만을 분석하였다. 이에 따라 표 11과 같이 분석했는데, 각 자기효능감에 대해 우울감은 뚜렷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전체 자기효능감과 일반적 자기효능감에서 저집단은 우울감이 제일 높았고, 중간 집단과 고집단은 우울감이 낮았다. 사회적 자

기효능감도 전체적으로는 유사한 경향을 보였는데, 저집단과 중간 집단이 우울감이 높았고, 고집단은 우울감이 낮았다. 그리고 생활만족도와 우울감은 유의미한 관계가 드러나지 않았다. 이것은 북한이탈주민 집단이 기존의 일반적인 연구 대상자들과는 약간 상이한 독특한 특징을 지니고 있기 때문으로서 선행 연구들에서 드러났던 점과 유사한 경향을 보인 것이다.

논 의

본 연구는 그동안 해묵은 것으로 보이면서도 통일 논의에서 빼놓지 않고 등장하는 중요한 문제인 남북한 문화이질성 논란을 심리학적 관점으로 조망해보려는 시각에서 이루어졌다. 그런데,

앞서 언급했듯이 집단 차원에서 그리고 문화의 각 영역별로 그 차이를 밝히려는 것보다는 개인이 해당 문화에 대해 자신의 원(源) 문화에 대비하여 볼 때 심리학적으로 문화적 이질감을 지각하는가의 방식으로 다루려고 했다. 따라서 현재로서 여기에 가장 적합한 대상으로서 남한에 입국해서 정착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을 선택하였고, 이들이 정착 초기 3개월 이내에 남북한 문화이질감을 어느 정도로 느끼는지를 확인하고, 이에 대해 어떠한 방식으로 대처하며, 그 결과로서 자기효능감과 심리적 적응 수준을 어느 정도로 가지게 되는지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결과는 기존의 이러한 논란에서 집단 차원의 남북한 문화적 이질성이 개인들에게 문화적 이질감으로 전환될 때, 개인들에게 많은 부적응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 견해가 많았는데, 이것이 사실이 아님이 입증되었다. 즉,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에 입국하면 대체로 남북한 문화이질감을 매우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들이 이 상태에서 그냥 머무르면서 적응하기란 쉽지 않다. 그 이유는 이들이 이주민이라는 성격 때문에 '적응'이라는 과제를 가지고 있고, 본인이 이 상태에 머물러 있을 경우 자신이 많은 손해 내지 피해를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이 이 문화이질감을 극복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전략을 구사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남한과 북한 각각에 대한 심리적 문화적응 지향성이고 이들을 조합한 결과로서 전략이 도출된다. 이때 이 문화이질감을 많이 가진 사람들일수록 북한 문화지향성보다는 남한 문화지향성을 조정하려는 경향을 많이 보인다. 이러한 것은 앞서 남한 문화지향성의 부분 매개효과 검증을 통해 확실하게 증명되었다. 그리고 이 결과는 '차이'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를 '극복하려는 의지'가 더 중요함을 보여

주는 것으로서 집단 차원에서 '남북한 문화이질성이 크다 작다'는 논란 그 자체가 가지는 의미가 제한됨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심리적 문화적응 지향성이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자기효능감을 파악해 본 결과에서도 북한 문화지향성과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었지만 남한 문화지향성과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지닌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아볼 수 있다. 이는 전체 자기효능감, 일반적 자기효능감, 사회적 자기효능감 각각에 대해 매개효과를 확인한 바에서도 전체와 일반적 자기효능감은 부분 매개효과가 있음이 드러났고, 사회적 자기효능감은 매개효과 유의미한 수준에 이르지 못함이 드러났다. 즉, 남한이라는 주류 사회에서 살아가는 북한이탈주민들이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이 남한문화를 지향해야 좀 더 적응적일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다. 이에 비해 북한 문화지향성을 지향하는 것은 전체 자기효능감과 일반적 자기효능감에 거의 무상관 수준을 보였고, 오히려 사회적 자기효능감에는 부적인 유의미한 상관($r=-.26, p<.01$)을 보였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결과이다.

또한, 북한 문화지향성과 남한 문화지향성의 조합을 통해 전략으로 살펴볼 때, 북한이탈주민들은 남한에서 자기효능감과 같은 적응 지표상에서 높은 적응 수준을 보이려면 동화 전략이나 분리 전략을 사용하는 것이 더 유효하다는 점이 드러났다. 이러한 것은 다소 의외의 결과라고 볼 수도 있지만, 채정민(2003)의 연구에서도 드러난 바대로 북한이탈주민들의 경우에는 분리 전략 즉, 북한문화를 유지하고 남한문화를 수용하지 않으려는 전략을 통해서도 자신들이 가지는 일정한 정도의 심리적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보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것은 여러 가지로 파악해 볼 수 있는데, 이들이 남한 생활에 대해 통

일 이전까지 일시적으로 정착하는 것으로 보거나, 기회가 있으면 제 3국으로 이주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거나, 남한 생활에서 자신들이 심리적으로 상처를 받을 것을 두려워서 북한문화라는 울타리 안에 안주하려는 경향이 작용한 것일 수도 있다. 특히, 현재 남한에서 이들에게 제공하는 지원정책이 일부 남한 주민들에 의해 역차별 주장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나, 북한을 이탈하면서 남한행을 먼저 결심한 것이 아니라 제 3국 등지에서 체류하다가 남한행이 더 상대적으로 나올 것이라는 점에 이끌려 온 경우들이 많아서 정착 의지가 약해서 일 수 있다. 이러한 것은 미주지역의 이주민들이나 기타 지역의 이주민들에게서 나타나는 양태와는 다소 다른 것이다. 미주지역 등의 이주민들도 분리 전략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LA 한 인타운이나 차이나타운처럼 별도의 생활 기반이 조성되어 있는 경우나 가능하다. 그런데, 북한 이탈주민들의 경우에는 이러한 별도의 생활 기반도 없는 가운데 분리 전략을 사용하는 것은 앞서의 가능성 이외에는 다른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따라서 이들이 분리 전략을 사용하려면 이에 걸맞는 자활공동체(윤인진, 1999)를 형성하도록 해야 하도록 하고, 이들이 일시적 정착이 결코 아니라는 의식을 심어주어야 한다.

이와는 달리 북한이탈주민들 중에서 주변화 전략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모든 자기효능감 영역에서 제일 낮은 수준을 보였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이들은 북한문화와 남한문화 모두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보이는 것인데, 이것은 매우 부적응적 결과를 낳게 한다. 이러한 양태는 미주지역 등의 이주민들에게서도 나타나는 것으로서 이들에 대해서는 남북한 문화에 대한 인식의 변화, 심리적 상담, 기타 제반 지원책을 활용하여 도와주어야만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이러한 것

은 당사자나 우리 사회에 큰 부담으로 남을 것이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다른 이주민들의 경우에는 통합전략을 구사하는 것과 바람직한 심리적 적응 간의 관계가 높은 것으로 드러나는데, 북한이탈주민들의 경우에는 이와는 달리 중간 정도의 심리적 적응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것은 다른 이주민과는 달리 북한이탈주민이 가지는 독특한 기제가 작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즉, 아직도 남한에서는 북한과 관련된 각종 고정관념, 편견, 이미지가 부정적인 면이 크기 때문에(예, 김혜숙, 2000) 이러한 점들을 북한이탈주민들이 별도의 문화 차원에서 가지고 남한의 문화도 받아들인다고 할 때 남한 주민들이 이를 바람직하게 보지 않을 가능성도 크고, 이러한 통합 전략을 가지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심적인 부담도 클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통합전략과 관련된 심리적 적응의 문제는 냉전과 분단의 논리가 감소되지 않는 한 상당한 시간동안 지속될 수 있는 독특한 점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북한이탈주민들이 전체 자기효능감, 일반적 자기효능감, 사회적 자기효능감 등의 영역에서 높은 경우 생활만족도와 같은 긍정적 심리 적응 지표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우울감과 같은 부정적 심리 적응 지표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결과는 매우 중요한 것으로서 자기효능감이 낮은 경우에는 생활만족도가 낮아지지는 않겠지만 우울증적 경향을 보일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한인영(2001)의 북한이탈주민들의 우울증 연구에서 21점을 절단점(cut-off)으로 보고 그 이상을 우울증상군으로 분류했는데, 이를 본 연구의 채점방식에 대비하면 평균이 2.05 수준 이상이어야 우울증상군으로 분류할 수 있다는 점을 토대로 볼 때, 자기효능감이 낮은 집단의 경우에는 대략

1.86~2.00으로 평균점 자체가 2.05 수준에 육박한다. 전체 자기효능감의 경우, 해당자 53명 중 23명(43.4%)이 2.05를 넘어서 우울증상군으로 분류되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이러한 점들로 볼 때, 북한이탈주민들 중에서 자기효능감을 낮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매우 취약한 상황에 처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심리적 취약성에는 북한 내에서나 이탈과정 중에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유발 원인같은 것이 작용할 수도 있지만, 그 원인을 남북한 문화이질감으로 올라가서 볼 때, 이 문화이질감 자체를 어느 정도로 갖느냐보다는 이들이 어떠한 심리적 문화적응 전략을 사용했느냐와 그에 따른 자기효능감이 어느 정도로 결정되느냐가 매우 중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점을 정책 차원에서 제안한다. 먼저 북한이탈주민들과 관련된 내용으로서, 첫째, 북한이탈주민들이 남북한 문화에 대해 이질감을 가지는 것을 굳이 조장할 필요는 없지만 동질적이라고 생각하는 안이한 경우나 부정확한 지각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바로잡아서 동질적인 것과 이질적인 것이 모두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시켜야 한다. 둘째, 이러한 점들을 토대로 이들이 이를 극복하도록 하기 위해 남한문화에 대해 좀 더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물론 이를 굳이 '남한인화'하려고 해서도 안되고, 할 필요는 없다. 셋째, 이러한 노력이 자기효능감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배려해야 한다. 이는 특히, 적응 초기에 특정한 심리적 문화적응 전략이 사용되어 가급적 유효한 성과를 가질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지원해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이들에게 밀착해서 지원하고 있는 신변보호담당관, 거주지보호담당관, 취업보호담당관과 같은 구조적 지원자 이외에도

NGO관계자, 해당 거주지의 남한 주민 등이 이러한 기제를 숙지하고 실천하도록 해야 한다.

다음으로는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것이 아니라 남북한 통일의 논의 과정에서 본 연구 결과를 수용하기를 바란다. 첫째, 집단 차원에서 다루어지는 남북한 문화이질성이 개인들에게는 남북한 문화이질감이라는 심리학적 차원에서 다루어질 수 있고, 여기서 '차이' 자체가 중요한 것이라기 보다는 이를 어떻게 해소하려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점이다. 둘째, 남북한 주민들이 어떻게 기존의 이질감을 극복하고, 이장호(1997)가 언급한 바대로 향후 통일 과정에서 발생할 이질감을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개인적 전략과 이를 지원해줄 수 있는 집단적 정책을 개발할 것인가에 주목해야 한다. 물론 이 과정에서 동질성 측면이 어떻게 이질감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작용할 것인가를 심도있게 검토해야 한다.

본 연구는 이상의 결과를 도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음을 밝힌다. 첫째, 본 연구에서 모델화를 시도하여 AMOS 형태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현재 상태에서는 남북한 문화이질감을 남한 주민과 북한 주민이 공통으로 경험하는 차원에서 다루기가 쉽지 않은데, 북한이탈주민들만을 대상으로 한 편중된 연구를 과잉일반화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둘째, 북한이탈주민의 남북한 문화이질감이 심리적 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확인하려고 했지만, 연구 수행 과정의 구조적인 문제 즉, 북한이탈주민들을 남한에 입국하기 전과 입국 초기에 접촉할 수 없다는 점 때문에 정착 초기에 지각한 내용을 중심으로 파악하였다.

셋째, 남북한 문화이질감을 포괄적으로 다루었는데, 이를 좀 더 구체적인 상황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이것은 이 문화이질감을 너무 구체적으

로 접근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예를 들어, '해당 이질감이 과연 남한 내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북한이탈주민들만의 독특한 경험 상황인가'와 같은 문제에 봉착할 수 있어서 의도적으로 피했던 것인데, 향후 이에 대한 정교한 이론화 작업이 이어져서 좀 더 구체적인 상황을 중심으로 이 문제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남북한 문화이질감 논의에서 대체로 배제되어 온 남북한 적대의식 혹은 분단의식, 나아가 레드컴플렉스(red complex) 같은 원초적으로 비통합적인 요인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것들은 남북한 문화이질감을 단순한 차이가 아닌 차별과 반목으로 나아가게 할 가능성이 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 곽금주 (1998). 자기효능감과 도덕적이탈(I) : 연령에 따른 변화.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1(1), 1-11.
- 김광역 (1999). 문화소통과 문화 통합: 통일에 대한 인류학적 접근. 이정복, 신옥희, 이승훈, 임현진, 김광역, 이장호, 박삼옥, 조홍식, 강현두 공저. 21세기 민족통일에 대한 사회과학적 접근, 145-174.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 김종성 (2002). 남,북한인의 가치관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혜숙 (2000). 북한 사람에 대한 고정관념, 감정과 태도. 한국심리학회 2000년도 춘계심포지움, 19-45.
- 나은영, 민경환 (1998). 한국 문화의 이중성에 관한 소고. 사회과학연구, 24, 3-16.
- 독고순 (2001). 탈북주민의 가치정향에 대한 비교연구. 한국사회학, 35(1), 149-174.
- 민경환 (1994). 심리학적 관점에서 본 한국 통일. 심리과학, 3(19), 84-99.
- 민성길 (2000). 통일과 남북청소년.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 박승관 (1994). 드러난 얼굴과 보이지 않는 손: 한국사회의 커뮤니케이션 구조. 서울: 전예원.
- 서재진 (1995). 또 하나의 북한 사회-사회구조와 사회의식의 이중성 연구. 서울: 나남출판.
- 서재진 (2004). 김정일 정권 10년: 북한의 사회변화. 통일연구원 개원 기념 학술심포지움 자료집.
- 성영신, 서정희, 심진섭 (1993). 남북한의 경제심리 비교. 남북의 장벽을 넘어서: 통일과 심리적 화합, 247-277.
- 유영옥 (1997). 남북한 이질성 극복을 위한 심리 사회적 조망. 한국정치학회보, 31(2), 173-201.
- 윤인진 (1999). 탈북자의 남한사회 적응실태와 정착지원의 새로운 접근. 한국사회학, 33, 511-549.
- 이기춘, 이기영, 이은영, 이순형, 김대년, 박영숙, 최연실 (1998). 남북한 생활문화의 이질화와 통합(II) - 북한의 가족·아동·소비·시간 생활 조사분석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6(11), 231-250.
- 이수원, 신건호 (1993). 남북한의 이데올로기 갈등과 사회발전. 남북의 장벽을 넘어서: 통일과 심리적 화합, 92-124.
- 이우영, 이금순, 서재진, 전현준, 최춘흠 (2000). 북한이탈주민 문제의 종합적 정책방안 연구. 통일연구원 협동연구 총서, 2000-06.
- 이은영, 김대년, 박영숙, 이기춘, 이기영, 이순형, 최연실 (1999). 남북한 생활문화의 이질화와 통합(III) - 북한의 의·식·주 생활 조사분석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7(1),

- 15-28.
- 이장호 (1997). 북한출신 주민(탈북자 포함) 심리 사회 적응 프로그램의 개발. *성곡논총*, 28(4), 서울: 성곡학술문화재단.
- 이장호 (2000). 통일의 심리학적 접근: 21세기 민족통일에 대한 사회과학적 접근.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 이종석 (1998). 분단시대의 통일학. 서울: 한울.
- 임현진 (1999). 남북한 통합의 사회문화적 접근: 의의, 현실 및 모색. 이정복, 신옥희, 이승훈, 임현진, 김광억, 이장호, 박삼옥, 조홍식, 강현두, 21세기 민족통일에 대한 사회과학적 접근, 99-143.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 조형 (1995). 세계화시대의 통일과 여성. 세계화시대의 통일과 지방화. 강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주최 학술대회 논문.
- 조혜정 (1996). '북조선'과 '남한'의 동질성과 이질성. 또 하나의 문화통일 소모임, 통일된 땅에서 더불어 사는 연습. 서울: 도서출판 또 하나의 문화.
- 조혜정 (1998). 반공, 반제 규율사회의 문화, 권력. *통일연구*, 2(2).
- 채정민 (2003).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내 심리적 문화적응 기제와 적응행태.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채정민, 한성열, 허태균, 김동직 (2002). 북한이탈주민용 문화적응 전략 척도 개발. 한국사회 및 성격심리학회 2002년 동계학술대회, 85-94.
- 한성열 (2000). 북한의 문화적 특성과 남북한의 심리적 통일. 한국심리학회 2000년 춘계 심포지움, 131-153.
- 한인영 (2001). 북한이탈주민의 우울 성향에 관한 연구.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11(6), 78-94.
- 홍혜영 (1995). 완벽주의 성향, 자기효능감, 우울과의 관계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Bandura, A. (1977).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 191-215.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1182.
- Campbell, A. (1981). *The sense of well-being in America*. New York: McGraw-Hill.
- Diener, E., Emmons, R. A., Larsen, R. J. & Griffin, S. (1985).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9, 71-75.
- Fehr, E. & Schmidt, K. (1999). A theory of fairness, competition, and cooperation.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14, 817-68.
- Judd, C. M. & Park, B. (1988). Out-group homogeneity: Judgements of variability at the individual and group level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1, 366-379.
- Kazdin, A. E., Siegel, T. C. & Bass, D. (1992). Cognitive problem-solving skills training and parent management training in treatment of antisocial behavior in childre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0, 733-747.
- Kitayama, S., Markus, H. R., Matsumoto, H., & Norasakkunkit, V. (1997). Individual and collective processes in the construction of the self: Self-enhancement in the United States and self-criticism in Japa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2, 1245-1267.
- Phinney, J. S. & Flores, J. (2002). "Unpackaging" acculturation aspects of acculturation as

- predictors of traditional sex role attitudes.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33(3), 320-331.
- Redloff (1977). The CES-D scale: A self report depression scale for research in the general population. *Applied Psychological Measurement*, 1, 385-401.
- Tran, T. V. (1987). Ethnic community support and psychological well-being of Vietnamese refugees.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21(3), 833-844.
- 1 차원고접수일 : 2004. 4. 5
최종원고접수일 : 2004. 4. 30

North Korea-South Korea cultural heterogeneity in psychological perspective: Focusing on the North Korean defectors' adaptation

Jung-Min Chae
Korea University

Jong-Han Yhi
Daegu University

This study is performed to understand and resolve psychologically the issue of North Korea-South Korea's cultural heterogeneity which is treated importantly in unification debates. We collected data from 181 North Korea Defectors through survey, and found out that the North Korea Defectors perceived cultural heterogeneity so much especially at the early settlement stage. However, this fact itself didn't give a serious suggestion, What is significant was how much South Korean cultural orientation they had as a coping strategy. When they coped with South Korean cultural orientation, they showed high level of self-efficacy, and furthermore they demonstrated high level of psychological adaptation. By the way, this psychological adaptation level was not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positive index such as life satisfaction, but correlated with negative index such as depression. That is, low self-efficacy group showed high level of depression and 43% of them could be classified as a depression-symptom group. Thus, we can conclude that it is rather helpful for the North Korean Defectors to have South Korean cultural orientation for overcoming North Korea-South Korea's cultural heterogeneity, and coping strategy is more important than cultural heterogeneity itself.

key words : culture, psychological adaptation, North Korean Defector, heterogeneity, reunification